

1.

미국은 두 번의 핵폭탄 투하를 통해 핵무기의 ‘파괴력’과 핵무기 사용 ‘의지’를 시현했다. 그리고 핵독점을 통해 동북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했다.¹⁾ 미국의 핵독점체제 하에서 “위대한 소련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북한의 핵무기담론의 최초 형태는 원자무기의 ‘금지’였다.²⁾ 1947년 3월 13일 『로동신문』에는 “원자무기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가 8월 24일에는 “누구가 원자무기의 금지를 반대하느냐” 등의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원자폭탄을 금지하는 문제의 토의를 미국과 영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1949년 2월 24일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 이를 뒤인 2월 26일에도 소련이 “군비축소와 원자무기금지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미국의 핵독점체제가 유지되던 1947년 9월 소련공산당은 공산당 국제조직인 코민포름(Communist Information Bureau, Cominform; Informbiro)을 창설했다. 소련,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공산당이 참여한 코민포름은 1919년에서 1943년까지 활동한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과 달리, 소련공산당이 주도하지만 ‘자발적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³⁾ 코민포름의 이차대전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적 반민주진영’ 대 ‘반제국주의적 민주진영’의 대립구도였다.⁴⁾ 제국주의적 반민주진영인 미국과 영국이 이차대전 이후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코민포름의 주장이었다. 코민포름의 ‘선언’은 이차대전을 계기로 형성된 미소의 ‘반파시즘 연합’의 해체를 의미하는 담론이었다.

미국의 핵독점에 대한 소련의 대응은, 세계적 수준에서 ‘반핵’(反核)을 기치로 한 평화운동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1949년 코민포름은 평화가 공산당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⁵⁾ 소련공산당 국제부는 ‘소비에트평화위원회’(Soviet Peace Committee)란 민간단체를 통해 평화운동에 개입했다. 미국은 당시 소련의 ‘평화공세’(peace offensive)를 미국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었다.⁶⁾ 다른 한편, 이차대전 이후 미소의 반파시즘 연합이

1)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p. 12; J. Gerson, *Empire and the Bomb* (London: Pluto Press, 2007).

2) ‘1958년’에도 사용된 표현이다. 김희중, “미제의 침략에 의한 남조선의 참상,” 『근로자』, 제3호 (1958. 3. 1). 소련도, “소련의 무력이 일본의 식민적 억압으로부터 한반도를 해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D. Ovsyany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p. 68. ‘1956년’ 중소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인 이른바 “8월종파투쟁” 이후 북한문헌에서 ‘위대한 소련’이란 표현은 감소했다. 정성임, “북·러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파주: 한울, 2007), p. 303.

3) S. Fay, “The Cominform,” *Current History*, 14: 77 (January, 1948). 예를 들어 코민포름의 본부는 소련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Belgrade)에 위치했다. 코민포름에 참여했던 동구 국가의 공산당들은 체코의 프라하(Prague)를 선호했지만, 소련은 이차대전 동안 독자적인 빨치산(partisan) 활동을 통해 공산화에 성공한 유고슬라비아의 영향권 이탈을 막기 위해 코민포름의 사무국을 베오그라드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철민, “코민포름 분쟁(1948)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시각과 대응전략,” 『슬라브연구』, 18: 1 (2002).

4) “Cominform Resolution and Manifesto,” *Current History*, 13: 76 (December, 1947).

5) P. Deery, “The Dove Flies East: Whitehall, Warsaw and the 1950 World Peace Congress,”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 History*, 48: 4 (December 2002).

6) “Report on the Communist ‘Peace’ Offensive: A Campaign to Disarm and Defeat the

해체되고 양극적 적대로 진입한 후, 반파시즘 성향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핵전쟁의 예방을 위한 비정부적 평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두 흐름의 결합으로, 1948년 8월 폴란드의 브로츠와브(Wroclaw)에서 ‘평화를 위한 세계지식인대회’와 1949년 4월 프랑스 파리(Paris)와 체코의 프라하(Prague)에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Congress)가 개최되었다.⁷⁾ 세계평화대회는 ‘브로츠와브연락위원회’와 ‘여성국제민주연합’이 소집한 것이었다.⁸⁾ 72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세계평화대회’가 두 도시에서 열린 이유는, 프랑스정부가 중국, 폴란드,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국가의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파리평화대회의 핵심 의제는, ‘평화’를 위한 반미(反美)와 반(反)자본주의였다.⁹⁾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제국주의”가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제의”를 “거절”했고, “원자무기를 비법행위로 규정하자는 제의도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샬플랜과 NATO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또다시 그들은 딸라로 우리의피를 사라고 하는것입니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금융의 “반동정치(리운의 원천)”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평화운동은 “실질적으로 무당파적 민주 운동”이었고, ‘반핵’을 매개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대중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⁰⁾

북한은 국가수립 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지만, 이 세계평화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1957년’에 간행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평화 옹호 운동”의 항목이 있을 정도다.¹¹⁾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현 시기의 가장 위력 있는 인민 대중의 운동이다. 제 2차 세계 대전후 얼마 안 있어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서방 침략 계층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음모를 강화하여 나섰는바 이것은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인민들을 불안케 하였다. 1949년에는 서부 열강들이 북대서양 동맹을 조작하여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켰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조성된 ‘정세’ 속에서 평화운동의 출현을 정당화하고 있

United States,” April 1, 1951. Prepared and Released by th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7) 화가 피카소(P. Picasso), 핵물리학자 졸리오-큐리(F. Joliot-Curie), 소설가 헉슬리(A. Huxley)와 같은 유명한 지식인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다.

8) G. Wernicke, “The Unity of Peace and Socialism? The World Peace Council on a Cold War Tightrope Between the Peace Struggle and Intrasystemic Communist Conflict,” *Peace & Change*, 26: 3 (July 2001).

9) “프레데리크·졸리오-큐리교수의 보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평양: 국립 인민출판사, 1949).

10)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백원담·임우경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2013) pp. 108-111; 소련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은, Barash and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pp. 39-40.

11) 『대중 정치 용어 사전』 (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 pp. 316-317. 1959년에 출간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증보판)』, pp. 296-297은, 이 구절에서 미국을 “미 제국주의자들”로 바꾸고, “서부 열강” 앞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표현이 보다 과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서구의 구호를 “《반쏘 반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대서양 동맹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란 정식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1957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은 발간의 목적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일상 생활과 정치 학습에서 제기되는 용어들에 대한 해명을 줌으로써 그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것이라 적고 있다. 98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80,000부’가 발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그러나 평화운동을 사회주의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현 시기의 평화 옹호 운동의 특징은 《평화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호 하에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인민 운동으로써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를 적극적으로 폭로 분쇄하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고립시키는 데 있다. 이 운동은 처음에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것인데 그후 사상, 신앙, 민족별을 불문하고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광범히 망라되게 됨으로써 마침내 그의 규모와 조직성에 있어서 일찍이 력사상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위력 있는 운동으로 되었다.¹²⁾

이 해설은 세계평화대회가 공산당과 지식인 중심에서 무당파적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59년’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었다는 구절이 없다. 평화옹호운동의 무당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해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평화대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핵무기의 ‘비범무기화’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

북한이 국가수립을 전후하여 생산해 온 ‘반핵(反核)담론’은 국제적 평화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국내정치적 계기를 가지게 된다. 북한은 세계평화대회의 참여를 국내적 차원의 대중운동과 연계했다. 1949년 3월 24일 평양에서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를 개최했다.¹³⁾

이 대회를 주도한 인물은 소설가 한설야였다. 식민지시대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KAPF)의 일원이었던 한설야는, 해방 이후 김일성을 만난 이후, 김일성을 ‘영웅’으로 형상화하는 글을 썼다. 1946년 5월 『정로』에 『김일성장군 인상기』를 연재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김일성의 흔적을 찾아 중국 동북지역을 답사한 이후, 『英雄 金日成將軍』을 집필했다. 이 책은, “民主文壇의巨星 韓雪野씨의 붓으로된” 작품이라는 소개와 함께 1947년 남한에서 발간되기도 했다.¹⁴⁾ 한설야의 식민지시대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과도기”가 농민계급 출신 노동자에서 혁명적 노동자로 전이해 가는 ‘주체’의 ‘전형’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영웅적 주체로서 김일성에 주목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카프의 주류가 아니었던 한설야의 권력의지가 김일성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해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설야의 이 ‘민첩성’은 그의 정치적 지위에도 반영되었다. 한설야는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었을 때, 그는 ‘북조선예술총련맹’ 위원장 자격으로 북로당 중앙위원회 43명 가운데 1명으로 참여한 유일한 ‘문인’(文人)이었다. 당시 북로당의 강령 제13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연방과 평화를 애호하는 각 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이었고,¹⁵⁾ 한설야의 세계평화대회 참가는 이

12) 1959년판 사전에는 “적극적으로”가 “신랄하게”로 바뀌어 있다. 1964년에 출간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 3판에는, 평화는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빠져 있다. 대신 북한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평화주의”에 이 구절이 들어 있다. “평화주의”는 “제국주의의 존재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며 정의의 전쟁까지도 포함한 온갖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평화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 사회 제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평화를 얻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평화에 관한 마음체계의 핵심이 이 둘이었다.

13) 북한이 세계대평화대회 참가를 위해 조직한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14) 韓雪野, 『英雄金日成將軍』(釜山: 新生社, 1947). 이 책의 인쇄소는 서울에 있는 ‘高麗文化社’였다.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재로 쓰기 위해 발행한, 연안파였던 崔昌益이 편집한 『朝鮮民族解放鬪爭史』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빨찌산운동”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설야의 작품만큼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강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기도 했다.

한설야가 서명자의 첫 머리를 장식한 1949년 3월 24일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은 이차대전 종료 이후 “평화가 확립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당시 정세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구절이다.¹⁶⁾

대전후 날아가면갈수록 세계에는 또다시 새로운전쟁의위험이 커지고있다. 그것은 전후의 세계제패를 꿈꾸며 반동의선두에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전쟁을 도발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 인민은 평화를 호오하며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반동파들을 반대하여 총궐기하였다.

한설야의 1946년 7월 『문예전선』에 발표된 작품인 “모자: 어떤 소비에트 전사의 수기”에서 “독일 파시스트”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미제국주의가 아니라 미국으로 독립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설야의 마음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미제국주의”로 “새전쟁방화자”로 옮겨 가고 있었다.¹⁷⁾

반면, 소련은 평화의 옹호자로 묘사된다. “세계의 항구한평화와 인류의 자유행복을 위하여싸우는 쏘베트인민들”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¹⁸⁾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를 미제국주의 타도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자기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변화시키는 미제국주의들의 침략정책을 타도하”고 미군을 “즉시철거케”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북한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에서는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파견할 대표로, 소설가이자 당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던 한설야, 여성계를 대표하여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애, 종교계를 대표하여 기독교민주동맹 위원장을 했던 김창준을 파리대회에 파견했다.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 참가자들을, “작가 배우 미술가 과학자 기사 교수 로동자 농민 기업가 상인 종교가 녀성 청년 및 사회활동가” 등으로 호명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대표단의 구성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국가건설 초기 이른바 “인테리”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¹⁹⁾ 건설과정에서 지식인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세계평화운동을 문화예술인이나 과학자와 같은 지식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대표단 구성이었다.

1949년 4월 25일 ‘평화옹호세계대회’에서 ‘대표단수석’의 자격으로 한설야가 한 보고서에서도 전국연합대회의 기초가 반복되었다. 미국은 “새전쟁방화자들”로, NATO는 “전쟁상인들의 뿔력”으로 묘사되었다. 진영론적 사고는, “제국주의 반동진영은 군비축소와 원자력 관리 및 평화유지에관한 쏘련의 정당한 제안을 갖은 흥책으로 거부하고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

15) 기광서, “북로당 창설 과정에 대한 검토,” 2014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16)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17) 한국전쟁의 과정과 이후에 발간된 한설야의 소설에서 미국은 ‘승냥이’에서 ‘원썩’이 된다. 『조선말대 사진』에는 승냥이를 “포악하고 교활한 제국주의 침략자나 흉악하고 악독한 자를 비겨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1951년 발표작 ‘승냥이’와 1952년 『로동신문』에 연재된 『대동강』 그리고 1955년 조선작가동맹출판사가 간행한 『대동강』 등이 한설야의 전형적인 ‘반미소설’이다.

18) 그러나 “모자”에서 혁명적 군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소련군의 만행을 그렸다 비판을 받았던 한설야는 그 작품을 개작했다.

19) 김일성은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리주하, 주녕하, 오기섭이 건설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무시한 좌편향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회주의건설과 지식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신언갑, 『주체의 인테리리론』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참조.

타났다. 한설야 보고의 결론은, “조국의 국토완정과 완전자주독립”이었다.

북한이 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차대전 이후의 ‘정세’와 사회주의국가의 ‘성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보여준다.²⁰⁾ 1949년의 시점에서 북한은 남로당을 대표했던 박헌영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대립, 즉 소련진영 대 미국진영의 대결로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를 읽고 있었다.²¹⁾ 그리고 이 진영대립을 생산하는 ‘외교정책’을 국가성격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쏘베트국가의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쏘베트외교정책의목적”이란 표현은 북한이 수입한 외교정책론이라 할 수 있다.²²⁾ 또한 평화운동의 보편성의 수용과 함께 북한은 평화운동의 한반도적 특수성을 ‘통일’과 연계하는 변용을 하고 있었다. 세계평화대회에서 북한대표로 연설을 했던 한설야는 1949년 6월 귀환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평화옹호운동의 당면한 문제는 곧 미군을 철퇴케 하며 반동배들을 처단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완성하는 것”이라 다시금 강조했다.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운동은 곧 통일운동으로 해석된 셈이다.²³⁾

3.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카자흐스탄 사막지역에서 지상폭발의 형태로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의 핵무기에 맞서는 소련의 세력균형정책이었다. 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선 첫 사례였다. 소련의 핵실험이 있고 한 달이 지난 1949년 9월 28일 북한은 “쏘련에서의 「원자폭발사건」에 관한 따쓰의 공식보도”를 언급한 후, 9월 29일에는 ‘북조선직총’과 ‘북조선민청’ 중앙위원장의 명의로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핵실험에 당황하고 있고, 소련의 핵실험이 “인류행복에 기여한다”는 반향을 1면에 보도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비판하던 논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949년 9월 30일에는 소련파 공산주의로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되는 박창옥이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의 직함으로 “쏘련의 원자무기소유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될 것”이란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에는 반대하지만, 소련의 핵무기는 평화의 도구로 생각하는 북한의 마음체계를 읽을 수 있다. 소련의 핵무기도 미국의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일 수 있지만 국가성격 즉 국가의 성향에 따라 핵무기가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담론은 소련의 핵실험 이후 소련의 ‘좋은’ 핵무기 대 미국의 ‘나쁜’ 핵무기라는 이분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련의 핵보유가 북소관계가 우호적인 조건 하

20) 국제정치에서 정세와 성향을 둘러싼 논의는,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21) 중국공산당도 이차대전 이후의 정세를 비슷하게 읽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세계에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상호 대치를 특징으로 하는 양극 구도가 점차 형성되었고 미국과 소련 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평화민주주의의 두 진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제도가 서로 대항하고 뒤엉킨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홍순도·홍광훈 옮김, 『중국공산당역사 상』 (서울: 서교출판사, 2014).

22) 진영론은, 박헌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대외정책에관하여,” 『인민』 1949년 2월호; 외교정책의 목적은, 드·브·레빈, “외교의개념에관한 문제에대하여” 『인민』 1949년 3월호. 두 글 모두 『북한관계사료집 3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에서 인용.

23)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pp. 89-90. 1949년 6월 11일 『로동신문』에 실린 한설야 귀국담의 제목은, “전쟁도발자를 반대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은 공고하다!”다.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대표단 귀환 직후인 1949년 6월 27일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었다. 통일운동체의 조직화였다. 북한은 이 조직을, “1946년 7월 22일에 조직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일층 확대 강화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 강력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1949년 6월 27일에 남북 조선을 통한 71개의 애국적 민주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참가 하에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강령』, 1957년판 『대중정치 용어 사전』, p. 264. 1959년 증보판에서는 단체의 숫자가 72개다.

에서 북한에 대한 핵우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의 도발까지 논리를 연장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소련의 핵보유는 자신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안보의 물적, 심리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매력이자 공포인 핵심리의 이중성은, 북한의 핵무기담론에도 반영되었다.

4.

소련의 핵실험이란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금지를 향한 북한판 평화운동은 계속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50년 3월 3일 “평화옹호 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에 관하여”란 결정을 채택했다.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의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군비 및 병력을 축소하며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강대국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²⁴⁾ 1950년 3월 19일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는 ‘스톡홀름 호소문’(Stockholm Appeal)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네 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구성된 이 호소문의 앞의 둘은,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와 핵무기의 ‘국제적 통제’였다. 그리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 정부를 전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선의(善意)를 가진 인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하고 있었다.²⁵⁾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를 담고 있던 이 호소문에는 2년의 기간 동안 5억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소련의 핵실험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을 준비하던 시점이기도 했고,²⁶⁾ 따라서 대중의 핵공포의 심리가 서명으로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²⁷⁾ 또한 핵무기 금지는 소련의 핵실험으로 미소 핵복점체제가 성립되었지만 미국이 핵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소련에게 유리한 구호이기도 했다.²⁸⁾

북한에서는 직장, 학교, 지역 등의 단위에서 서명운동이 군중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평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번역하고 있던 북한의 마음체계에서 서명운동의 한반도적 맥락성은 제고될 수밖에 없었다.²⁹⁾ 한국전쟁 와중에도 이 서명운동은 계속되었다.³⁰⁾ 사실 한국전

24)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 80. 당시 『로동신문』 기사를 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경덕,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표 김익두, 대의원 리기영 등이 토론을 했다고 한다.

25) 이 호소문은 당시 의장이었던 핵물리학자인 프레데릭 졸리오-퀴리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로동신문』 1950년 3월 24일자에는 “평화옹호세계위원회, 원자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부는 범죄자로 인정될 것이다. 졸리오-퀴리의 연설.”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프레데릭 졸리오-퀴리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의 사위다. 프레데릭 졸리오-퀴리는 부인인 이렌 졸리오-퀴리와 함께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렌 졸리오-퀴리도 프레데릭 졸리오-퀴리와 함께 평화운동에 참여했다. “졸리오-퀴리”는 1950년대 『로동신문』에서 “위대한 평화 투사”로 묘사된다.

26) 미국은 1952년 11월, 소련은 1953년 8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영국은 1957년, 중국은 1967년, 프랑스는 1968년이다.

27) 소설가 토마스 만(T. Mann), 샹송가수 이브 몽땅(Y. Montand), 시인 파블로 네루다(P. Neruda), 화가 파블로 피카소(P. Picasso),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 등의 이름이 보인다. 우파 정치인으로 1995년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 자끄 시락(J. Chirac)도 서명했다.

28) 중국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중국에서의 ‘평화서명운동’은 중국의 국가수립 이후 195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전국적 규모의 첫 번째 “선전운동”이었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 후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된다. 청카이,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pp. 114-115, 125-152. 미국의 핵우위기는 상호확증파괴의 개념이 도입되는 1960년대 말까지다.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pp. 14-18.

29) 당시의 문건에서 평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번역하는 마음체계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적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평화옹호자대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1950년 2월 22일. “평화 옹호 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에 관하여 (1950년 3월 3일 채택된 결정)”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통일 민주주의의 전선의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에 대한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며 그 실천을 위한

쟁의 발발은 국제적 수준의 서명운동을 촉진한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서명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의 금지를 담고 있는 서명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 묶음의 종잇조각’들이 완전하게 원자폭탄 투하의 실제 걸림돌이”였다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³¹⁾

투쟁에 걸기한 애국적 전체 조선인민들을 격려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조선 중앙 년감 1951-1952』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52).

30) 한국전쟁 와중에도 북한은 이른바 ‘해방지구’에서 스톡홀름 평화호소문에 대한 서명을 진행했다. 북한자료에 따르면, 1950년 9월 16세 이상의 서명자가 13,319,10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p. 100. 『조선 중앙 년감 195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의 “국제회의 및 기구” 편에는 세계평화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평화옹호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실려 있다.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에도 북한은 세계평화대회에 한설야를 대표로 파견했다. 『로동신문』, 1952년 5월 16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국전쟁 와중인 1952년 5월 17일 『로동신문』에는 “아세아 및 태평양 구역 평화 옹호 대회 발기를 중국의 저명한 평화 투사들”이 “호소”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는 1952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10월 6일에는 한설야가 “공평하고 합리적 기초 위에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관한” 보고를 했다. 이 대회에서는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문’, ‘5대강국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을 강화할 데 대한 결의문’ 등이 채택되었다. 북경 평화옹호대회의 진행과정과 이 대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pp. 101-109 참조.

31) 청카이,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pp. 120-125; Gerson, *Empire and the Bomb*, p. 268. 스톡홀름 호소문을 작성할 당시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정부를 ‘전범’(戰犯)으로 규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